

동양에서 공자 손자인 자사(子思)가 저술한 《중용(中庸)》에 “중(中)이란 치우치지 않고 기울지 않으며,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음의 이름이요, 용(庸)은 일상적이다.(中者, 不偏不倚 無過不及之名 庸平常也)”라고 했다.

또 서양에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Nicomachean Ethics)》에서 인간은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극단적인 태도를 피하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창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중용을 지키며 사는 것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만 하고 싶어하고, 싫어하거나 흥미가 없는 것은 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인간 심리 저변에 깔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다고 자신한 분야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금도를 넘어 망용으로 치달을 때도 있고, 이와 반대로 자신이 없는 어떤 사물에는 너무 소극적일 수도 있다.

몇 가지 중용 관련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다. 몇 년 전에 중용을 강의한 적이 있다. 청중에게 ‘밥술의 원리’를 인용하여 설명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흥미 있게 받아들였다. 밥술에 찌든 쌀을 넣고 물을 조절할 때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손등 높이로 밥을 지으면 밥 먹기에 좋다. 중요이 되고, 너무 적게 부으면 실어서 잊북분은 생활 그대로 있다. 옛 우리 어머니는 무심코 중용 실천을 매일 한 셈이다.

건강 관리에 있어서 운동이 좋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지만, 운동량이 부족하면 몸이 비대해져 내장 장기에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당뇨병, 대장암, 치매 등의

칼럼

이동환

AOU대학교 전 교수



중용(中庸)을 이탈한 인재 등용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반면 운동량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면역이 억제되어 감기 등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된다고 말한다.

중용적인 관점에서 보는 종교관이다. 건전한 종교 생활이란 자기가 믿는 신앙에 조화로운 믿음을 부여하며 일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일상보다 지나치게 종교에 치우치면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한다.

인도 마하트마 간디는 힌두교에만 치중했으면 인도의 ‘국민운동’을 이끌지 못했었다. 자신이 속한 종교보다는 더 위대한 뭔가를 열망했기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지도하였었다.

미국 마틴 루터킹(Martin Luther King) 목사도 침례교회만 치중했으면 비폭력 운동을 이끌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성별, 인종, 지역, 종교를 가리지 않고 모든 미국인에게 존경받는 인물로서 ‘흑인 민권 운동’의 영원한 아이콘으로 여겨지고 있다.

선천적인 재능이나 후천적인 노력으로 빨리 배워서 조기에 명문대나 각종 고시의 문턱을 패스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조금씩 교만해진다. 국가나 회사, 조직에서 우수 인재 획득 차원에서 명문대, 우수 인력들이 지나치게 몰려있어서 오히려 국민에게 좋은 영향보다는 부담스러운 영향을 주고 있다.

작년 12.3쿠데타 세력을 보자. 국방장관 김용현(육사 38기), 육군참모총장 박인수(육사 46기), 특전사령관 곽종근(육사 47기), 방첩사령관 여인형(육사 48기), 수방사령관 이진우(육사 48기),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사 50기) 등 국방 주요 요직에 육사 출신만이 집중적으로 보직되어 임무 수행하는 구조였다. 즉 한 학교 출신으로 높은 요직에 등용하는 것은 통수권자의 성격에 따라 국가 안보와 정치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는 중용에 어긋난 인사 운용으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출된 ‘국립의대 교수 편성’ 자료(2022)에 따르면 서울대는 356명 중 275명(77.2%), 부산대 121명 중 102명(84.3%), 전남대 146명 중 127명(87%) 등 자교 출신 교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편벽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반면에 카이스트 공과대학 52

명 교수의 분포도(2025.4)를 보면, 카이스트 모교 출신 14명(28%), 서울대 23명(44%) 기타 15명 (28%)로 비교적 균형과 조화로운 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대법원을 보자, 헌법재판소의 경우(2025년) 9명의 재판관이 서울대 법대 8명(88%), 지방대 1명(12%)으로 편성되어있고, 대법원 소속 대법관(2025년) 14명 중 서울대 법대 12명(86%), 고려대 1명(7%), 한양대(7%) 1명이다.

법복, 제복을 착용한 직업은 계급과 숨은 급수의 위력으로 위계질서가 잡혀있다. 이들의 연결고리는 상호 질적 교류와 보이지 않는 소통 채널로 펜과 돈이 얼마든지 작동할 수 있다. 현재와 대법원의 주요 구성원 편제는 지나친 학연으로 신뢰가 무디어 보인다. 새 정부 들어서면 국민 눈높이로 바로 잡아야 한다.

최고의 인간적 삶은 중용이다. 치우치면 세상이 평화로울 수 없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에서 무너진 균형과 조화를 찾아 중용을 실천해야 한다. 낮이 길면(夏至) 밤이 긴 쪽(冬至)으로 작용하는 우주의 질서처럼, 작용과 반작용 원리처럼 치우침이 없이, 마음을 비우고, 사욕을 내려놓을 때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다.

《채근담(菜根譚)》에 “꽃은 반쯤 피었을 때 감상하고, 술은 취기가 오를 정도만 마시면 아름다운 행복이 있다. 만약 꽃이 눈부시도록 활짝 피고, 술에 지나치게 취하면 문득 재앙이 올 수 있다.”라며 중용을 예술로 표현했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대형산불 시대, 산림을 지키는 산불 대응 전략

2025년 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대형 산불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초동 대응의 어려움, 인력 부족, 장비 미비 등 현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으며, 이 같은 문제는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담양군 또한 더 이상 산불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건조한 날씨, 영농부산물 소각, 그리고 넓은 산림을 보유한 지역 특성상 담양군도 산불 위험에 자유롭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 앞에서 지자체의 대응 역량이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다는 점이다.

1. 산불예방의 최전선, 그러나 고령화된 진화대
담양군을 포함한 많은 기초지자체에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초기 대응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원 상당수가 60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어, 고지대 산림 접근이나 기동성 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인다. 특히 강풍 속에서 불이 빠르게 확산되는 대형 산불 상황에서는 고강도 진화 작업에 참여하기조차 어렵다.

더욱이 단기 계약 중심의 고용 구조는 진화대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산불 예방과 진화를 전담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 후 숙련 인력이 매년 유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불 대응 노하우의 축적도 사실상 어렵다. 산불 대응을 단기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현장의 안전 확보 역시 요원하다.

2. 헬기 임차에 대한 부족한 국비 지원
산불 대응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헬기다. 그러나 현재 담양군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임차 헬기를 운영할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도와 군에서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산림청 헬기나 중앙정부 자산은 한정되어 있고, 보통 산불 발생 후 현장 도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면 지자체의 헬기 확보가 필수적이며, 산불 대응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 헬기에 대한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

3. 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 대응 전략 마련
산불의 대부분이 인위적인 실화에서 비롯된다. 지자체는 과거 산불 발생 이력이나 상습적 소각 행위 지역 등을 기반으로 산불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림 인근 마을 주민이나 등산객 등과 협력하여 상시 감시망을 구축하고, 드론·CCTV 등 기계 기반 감시와 함께 인간 중심의 감시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군은 마을 이장을 산불명예감시원으로 임명하고, 산림 연접지역에서의 소각 행위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들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불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홍보 및 감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의식 부여는 가장 효과적인 산불 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

대형 산불 발생 시 진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주민 대피다. 주민의 신속한 대피는 생명과 직결된 만큼, 지자체는 정기적인 산불 대응 훈련과 교육을 주민과 함께 실시해야 한다.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대피 경로, 대피소 위치 등을 사전에 숙지시켜야 하며,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맞춤형 교육이 필수적이다.

산불은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재난이 아니다. 매년 반복되고 대형화되는 이 위협 앞에서, 지자체는 단순한 복구 주체를 넘어 예방과 초기 대응의 핵심 기관이 되어야 한다. 헬기 지원, 인력 구조 개선, 지역 기반 대응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대형 산불은 언제든지 담양의 산림과 삶을 위협할 수 있다. 산림은 생명이다.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담양군수 정철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오늘의 운세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음력 4월 24일)



48년생 앞으로의 속세 미미리 해결하자 60년생 승승장구 순풍에 돛이 달린다 72년생 쓴소리 미운 소리 한귀로 흘려내자 84년생 거칠게 달리는 시련과 맞서보자 96년생 행락한 평화를 그림으로 그려보자.



49년생 포장을 벗겨내야 속내를 알 수 있다 61년생 이는 만큼 보인다 열심히 공부하자 73년생 금쪽같은 기회 날개를 펼쳐보자 85년생 막중한 책임 계급장이 달린다 97년생 놓지 않으면 희망이 반전을 불러낸다.



50년생 적당한 양으로 흥정을 마쳐보자 62년생 산배어 산이여도 포기는 금물이다 74년생 초심인 산림 부자가 되어간다 86년생 천국 부럽지 않은 호사를 누리보자 98년생 아뜨고 쓰린 실패 세상을 배워보자.



51년생 그리웠던 시절 추억을 더듬어보자 63년생 경사 중의 경사 당실 당실 춤을 추자 75년생 사랑하고 싶은 만남을 가져보자 87년생 자레짐 작포기 꼬리가 달린다 99년생 역척스럽다 핀잔 당연히 받아보자.



52년생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함을 가져보자 64년생 배움이 있는 곳 어디든지 달려가자 76년생 폐가 될까 싶어 조심을 더해보자 88년생 푸대접을 받아도 소신을 지켜내자 100년생 똑똑하게 잘한다. 칭찬을 들어보자.



53년생 하늘의 별을 보고 시를 만들어보자 65년생 치열한 경쟁 전투태세 갖춰보자 77년생 운명이 잡지해준 짝을 만나보자 89년생 제격인 감투 비단옷이 걸린다 101년생 훌쩍 자란 솜씨 박수는 덤으로 온다.



54년생 금방 후회되는 실언을 감아내자 66년생 예쁜 유혹에는 거칠이 숨어있다 78년생 사서했던 고생이 보람을 더해준다 90년생 경직된 가래로 신뢰를 얻어내자 102년생 철부지 짝사랑 대답조차 못듣는다.



55년생 맛있는 담으로 숙제를 마쳐보자 67년생 노력하지 않았던 실패가 남겨진다 79년생 자극한 겸손 하늘 높은 줄 알아보자 91년생 맛있는 음식에 기분도 최고로 간다 103년생 언제까지미 주는 부름에 나서보자.



56년생 흥겨운 분위기 주인공이 되어보자 68년생 기억에서 사라진 초심을 찾아내자 80년생 고마운 이웃에 도움을 받아보자 92년생 더디고 느리게 목표를 향해가자 104년생 교과서 배움 더하거나 보태지 마라.



57년생 아이고 소리 나는 부탁이 들려온다 69년생 좋다는 표현 진심을 더해보자 81년생 격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가져오자 93년생 든든한 콧대 버린 값을 불러보자 105년생 행복하지 못했던 이별 인사해보자.



58년생 지켜오던 원칙에 변화를 가져보자 70년생 잡안이 들썩이는 경사를 맞이한다 82년생 낮은 조합에도 의리로 뭉쳐보자 94년생 용감한 선택이 만세를 불러낸다 106년생 감동이 담겨있는 선물을 받아보자.



47년생 미련의 짚개기 흔적조차 지워내자 59년생 기대만 두려움 반출 발전에서 보자 71년생 개우침을 주는 충고를 들어보자 83년생 낙제점 성적표 반성이 원인이다 95년생 여럿이 함께 협동 정신이 필요하다.

광 전 매 일 신 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 장 이 송 암	발행인·대표이사 정 길 화
편집인전광춘	편집국장 박 선 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 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년 36,000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